

볼턴 “작은 딜 하기 보단 그냥 걸어 나왔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뒷 얘기 일괄타결식 빅딜 시도 재확인

“트럼프 여전히 북에 문 열어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더 작은 딜(the lesser deal)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매우 친절한 방식으로(회담장 밖으로) 걸어 나간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은 정말로 정확히 올바른 일을 한 것”이라며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핵 담판 당시 상황에 대한 뒷얘기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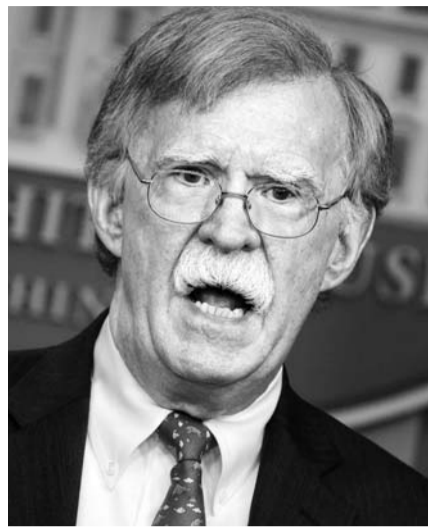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북한에 말했듯, ‘당신들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뿐 아니라 모든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 결정만

내려라, 당신의 주민을 더 안전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라’고 그들에게 말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핵 무기와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하는 ‘대량파괴무기(WMD)의 전면적 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맞추는 일괄타결식 빅딜을 시도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비핵화 목표에 부족한 ‘불완전한 스몰 딜’을 택하기보다는 결렬을 택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선언’ 채택이 무산, 북미가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매파’인 볼턴 보좌관이 전면에서 연일 목소리를 키우며 북한에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흐름이다.

볼턴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에 건넸다는 ‘빅딜 문서’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설명한 것의 연장선으로, 특히 볼턴 보좌관은 이날 ‘모든’이라는 표현을 추가, 완전한 WMD 폐기를 북측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구했음을 분명히 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함으로써 김 위원장을 국제무대에 정상화한 측면에 대해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그가 이들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어떤 것도

내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 방식의 대북 외교가 핵무기를 중단시키거나 늦추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완전히 뒤집어 뭔가 다른 걸 시도했다면서 “그가 지난 30년의 실패에 비교해 덜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긴 힘들다. 그러나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켜보자”며 미 조야 내 회의론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볼턴 보좌관은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 대통령은 북한에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걸어 들어오지 않았고,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다시 문을 열어줬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도 역시 걸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써 열려 있는 ‘기회’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트럼프 대통령)는 여전히 문을 열어줬다”며 “그들(북한)은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지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한미 외교 전문가들

“북미 2차회담 실패 아냐

신뢰 쌓으며 계속 나아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됐지만, 이를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뢰를 쌓아가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020년대를 향한 한미동맹 강화’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운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두 번 만났다는 사실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장기 전략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북한과 미국의 태도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으로 그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핵) 일부는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동시적인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앞으로의 협상을 낙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케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나는 그것이 느린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상회담에 이르기 위해 실무협상을 갖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과이도 체포 위협속 귀국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가운데)이 5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이도 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체포 위협 속에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마두로 정부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美민주당 화력 보강하며 전면전 대비

하원 상임위 전문인력 채용

백악관도 법률팀 대폭 보강

전방위 총돌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마다 화력을 보강하며 전면전 준비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부터 각종 개인 의혹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조준한 민주당이 의회 차원의 조사 인력을

확충하자, 백악관도 법률팀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잇따라 채용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가 뉴욕 맨해튼에서 활약한 전직 연방검사를 고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 업무를 이끌게 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백악관과 법무부, 트럼프 그룹 등 모두 81개 대상에 서한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한 하원 법사위원회도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배리 버크,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트럼프 관련 조사를 했던 노먼 아이젠 전 백악관 고문을 각각 채용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도 상원에서 금융과 돈세탁 전문 조사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밥 로치를 최근 합류시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태국 두리안 갑부, 딸 신랑감 공개 오디션

상금 3억여원...수백명 몰려 딸 “외모는 보지 않는다”

태국의 한 과일 유통업체 거부가 딸의 배우자를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나서자 수백 명의 신랑감 후보가 몰렸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전했다.

6일 인터넷 매체 카오슛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남부 두리안 유통업체의 가장 큰 손인 아논 롯(58)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6세 막내딸의 신랑감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렸다.

사위가 되면 1000만 바트(약 3억 5000만원) 상금과 함께 사업을 물려받게 된다는 내용의 광고는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져나갔고, 하루 만에 수백 명이 ‘공개 오디션’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아논은 ‘신랑 공개 오디션’ 이화제가 되자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딸이 혼자서 사업을 물려받는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믿을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밝힌 ‘사윗감 자격’은 두리안 사업에 애정을 갖고 있고 근면 성실하며, 마약이나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논은 수백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 남부 째타부리에 있는 자신의 두리안 매장에서 부녀가 참석할 가운데 ‘공개 오디션’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투사처럼 무기를 들고 싸울지, 아니면 두리안을 들고 펼지, 오디션에서 어떤 종목으로 사윗감을 결정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논은 “그날 째타부리에 오면 알게 될 것”이라며 웃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배우자를 맞이하게 된 아논의 딸 칸사타는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다. 사교 모임에 데려갈 수 있고 같이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면서 “나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만큼, 외모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美 국경 넘은 이민자 7만6천명 넘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유입 차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급증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와 인접한 남서부의 국경을 허가 없이 넘는 사람은 7만6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가족 단위 이민자라고 AP통신과 일간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수도 급격히 늘었다. 감시가 덜한 외딴 지역을 노려 100명

이상이 함께 국경을 넘어 적발된 사례는 지난 몇 달 사이에만 70건에 달했다.

이런 사례는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3건, 2017 회계연도에는 2건에 불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에 이민을 원천차단하는 장벽 건설을 추진하며 불법 입국자를 모두 기소해 구금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의 실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6월 이민자 ‘가족 격리수용’ 정책이 반대 여론과 법원의 결정으로 폐지된 뒤 가족들이 집단을 이뤄 함께 국경을 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차산업 을 자금난 심화...유통·에너지와 3대 위험군

세계 구조조정 전문가 설문

세계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올해 가장 자금압박을 받을 산업으로 유통, 에너지와 함께 자동차 산업을 꼽았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가 최근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자금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3대 업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분의 1이 자동차를 지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응답률은 1년 전 조사 때보다 5배

상승한 것이다.

자동차보다 많은 전문가의 지목을 받은 부문은 유통과 에너지뿐이었다.

알릭스파트너스는 보고서에서 자동차가 유통업과 함께 “순조롭지 않은 경제여건, 산업 방해요인, 소비자 기호 변화 등 위협의 ‘버퍼’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주요 자동차업체 가운데 타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 등 소수 업체 외의 대부분은 유망한 금융 리스크가 있는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훔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